2025 새해 이렇게 김한종 장성군수

"민생안정·지역성장 최우선…군민과 함께 뛰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신속 추진… 취약층 '핀 포인트 지원' 주력

양대체전 개최 발맞춰 '장성 방문의 해' 운영 관광 중심지 도약

"군민과 함께 민생을 최우선시하며 힘차게 뛰겠습니다."

김한종 장성군수는 13일 광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올해는 장성군의 역사가 바뀌는 해"라며 "양대체전 개최를 필두로 '장성 방문의 해'를 운영해 관광 중심지로 도약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김 군수는 새해 군정목표를 크게 두 가지로 요약했다. '민생 안정'과 '지역 성장'이다. 국가적인 어려움과 경제 위축으로 고통받고 있는 서민들의 삶을 하루빨리 회복하는 데 총력을 기울인다는 것이다..

장성군이 추진하는 올해 추진사업 중 가장 주목할 부분은 106억원 규모 '지역경제 활성화 대상사업'이다.

군은 ▲농어민공익수당 등 장성사랑상품권 정책발행 ▲위생업소 위생용품·환경개선 지원 ▲영세음식점 공공요금 지원 ▲버스·택시 운전원 생활안정자금 긴급지원 ▲저소득 어르신 난방비 지원 등 군민에게 즉각적으로 혜택이 돌아가는 15개 사업을 조속히 추진한다.

이와 함께 공사, 용역, 소규모 영세상가 등 대가 지급도 설 명절 이전까지 추진해 지역업체 경영 안정을 도모한다. 예상되는 금액은 약 800억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대상사업 106억 원과 합산하면 906억원에 이른다. 올해 장성군 본예산 5708억원의 16%에 해당된다.

이와 관련 김 군수는 "한정된 예산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소상공인, 농업인, 취약 어르신 등 시급한 지원이 필요한 주민 위주로 '핀 포인트 지원'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두 번째 군정목표인 '지역 성장'에 방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관광과 성장동력 확보, 미래 농업 대응, 환경·안전·복지분야 발전을 도모해 군민과 함께 성장해 나갈 계획이다.

관광분야에서는 전남체전(4월 18~21일), 전남장애인체전(4월 30일~5월 2일)과 발맞춰 운영하는 '장성 방문의 해'가 이목을 끈다. 축령산 등 산객 대상 무료 관광택시 운영, 보물찾기, 버스킹 등 다채로운 체감형 콘텐츠를 마련해 사계절 축제같은 도시를 만든다.

김 군수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필암서원 콘텐츠 발굴, 장성호 횡단출렁다리 설치, 황룡강 지방정원 조성 등 지속가능한 관광산업 기반 조성에 주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성장동력 확보 분야에선 커다란 변화가 예상된다. 살기좋은 농촌을 만드는 428억원 규모 농촌협약, 목재문화 중심지로 거듭나는 270억원 규모 대창동 도시재생사업, 장성호 관광지를 명소화하는 300억원 규모 장성 원더랜드 프로젝트 추진을 통해 지역 균형발전의 초석을 다진다는 구상이다.

여기에 총사업비 769억원이 확정된 국립심뇌혈관연구소 설립과 지방산업단지 신규 개발로 지역경제를 견인할 방침이다.

군민 삶의 질 향상과 연결되어 있는 환경·안전분야 성장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할 생각이다.

김 군수는 "황룡강을 생명과 문화의 강으로 재탄생시키고 축령산 휴양림,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을 통해 '숲'과 '쉼'이 이어지는 지역을 만들겠습니다"며 "신규 소각시설 설치, 청운지하차도 개설 등 '환경'과 '안전'이라는 기본을 한결같이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군민행복 완성을 위한 복지분야 사업 추진에도 박차를 가한다는 목표다.

그는 "모든 군민이 행복한 장성을 만들기 위해 초·중·고등학교 입학축하금, 대학생 등록금 지원과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어르신 100원 행복택시 운영 등 군민 한 분 한 분을 살뜰하게 살피고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김한종 장성군수는 "민선8기 출범 원년인 2022년 대비 올해 장성군 예산 총증감율은 16.94%로, 전남도 22개 시군 가운데 2위를 기록 중"이라며 "예산 확보에 총력을 다해 2025년을 '기회와 성장의 해'로 만드는 원동력으로 삼겠다"라고 각오를 다졌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

담양 농업 업체들 수국 부가가치 창출·활용 팔 걷었다

글로벌 냉동식품·담빛곡간

상품개발·공급체계 구축 등 협약

지역 농산물 가치 향상을 위해 지역 농업 업체들이 협업에 나섰다.

13일 담양군 등에 따르면 최근 (주)글로벌 냉동식품과 농업회사법인 (주)담빛곡간은 최근 농업분야에서의 혁신과 공동 발전을 위한 상호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사진〉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농업과 농업인의 소득 향상, 지역 농산물의 부가가치 증대, 상품 연구개발을 통한 동반 성장을 실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글로벌 냉동식품은 차수국잎을 활용한 상품 개발을 비롯한 유통 노하우 등을 제공하고, 담빛곡간은 차수국잎 품질관리, 공급 체계 구축, 농업 관련 데이터 등 자원 공유를 힘쓴다. 이를 통해 양 단체는 농업인의 소득 증대, 지역 농산물 가치 향상, 그리고 새로운 상품 연구개발을 위한 기반을 다지며 담양군의 농업 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로 했다.

담빛곡간 채경일 대표는 "차수국차 잎 품질 관리와 공급 체계 구축은 농업계의 혁신을 촉진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며 "두 기업의 협력은 담양군의 경제적 발전을 촉구하며, 지역 농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글로벌 냉동식품 장준 대표는 "앞으로도 고객만족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신뢰와 양심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며 "모든 과정을 철저히 관리하고, 고객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제품을 제공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농업회사법인 담빛곡간은 차수국차 잎을 기반으로 한 작목반으로, 품질 관리와 공급 체계 구축에 힘쓰고 있고, 글로벌 냉동식품은 중국과 베트남에 100% 독자 투자한 생산법인을 운영하며 국내 최대 규모의 종합 식자재 센터를 보유하고 있다. 친환경적이고 경제성 있는 고품질의 다양한 식자재를 국내외로 공급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한동훈 기자 hdh@kwangju.co.kr

'나주몰' 설맞이 농특산물 20% 할인 기획전

30일까지…배송비는 연중 무료

나주시가 운영하는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 '나주몰'에서 설맞이 '20% 할인 기획전'을 진행한다.

나주시에 따르면 오는 30일까지 나주몰(www.najumall.kr)에서 나주배, 쌀, 한라봉, 홍어, 한우 등 농축수산 특산물을 구매하는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6만원 이상 구매 시 총금액의 2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할인 혜택은 1인당 최대 20만원까지 구매 금액에 대해 '4만원'을 할인 해준다.

나주시장이 맛과 품질을 보증하는 '천년이음 나주배'는 배 본연의 맛이 뛰어나 올 해 설 명절에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나주시는 기획전을 앞두고 나주몰 이용 고객 편의 증진과 유통채널 다각화를 위해 모바일 앱(App)을 6일부터 신규 오픈해 운영한다. 올 상반기엔 나주사랑상품권 온라인 결제 시스템도 갖출 예정이다. 나주몰에선 소비자들이 고품질 농특산물을 부담 없이 받아 볼 수 있도록 연중 무료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농가 소득 증진과 농특산물 판로 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나주몰은 지난 2024년 역대 최대 11억원의 매출을 달성했다. 2023년과 비교하면 250%(3억1500만원) 매출 신장 성과를 거뒀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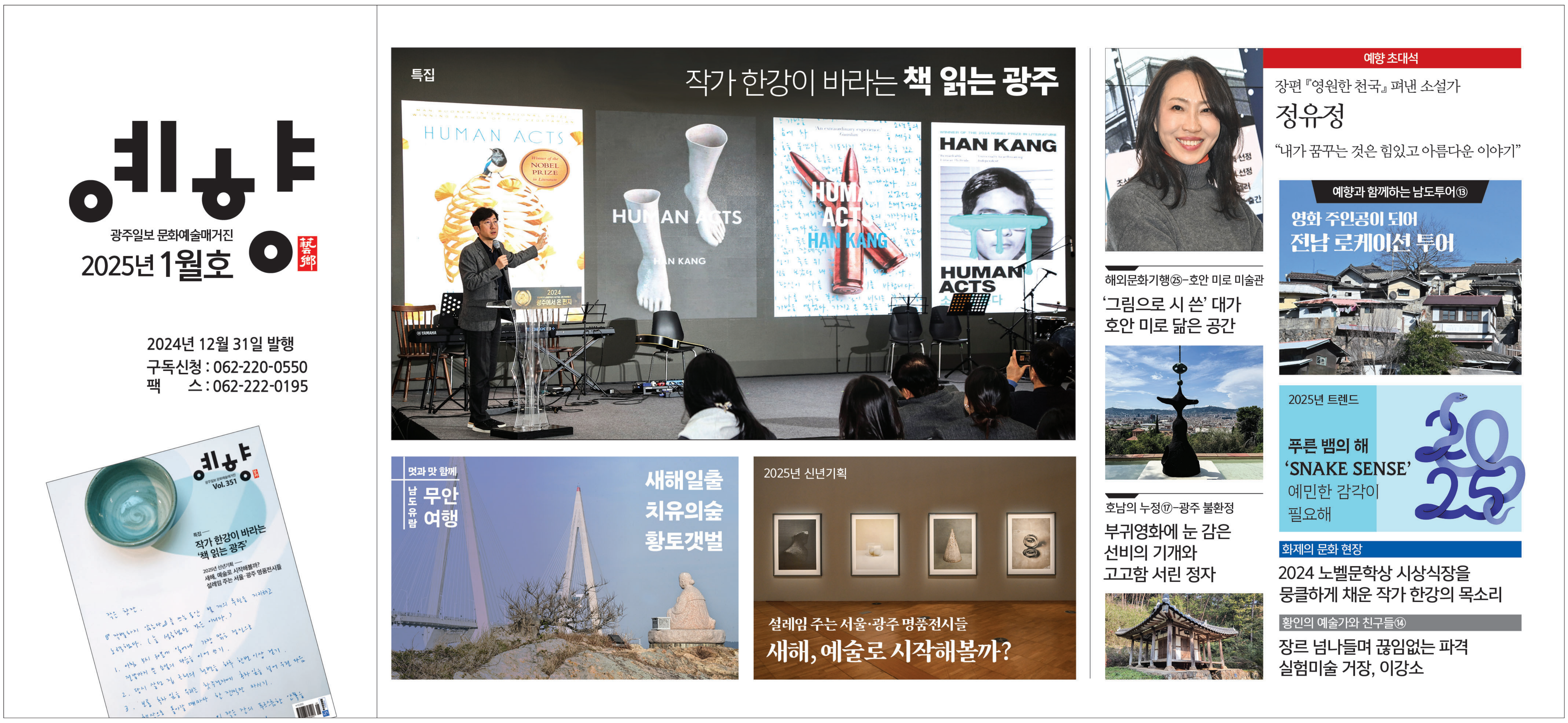
함평군 해양수산분야 28개 사업 신청 접수

함평군이 지역 수산업 발전과 어촌 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5년과 2026년 해양수산분야 사업 신청을 접수한다.

2025년 지원 사업은 어선어업, 양식업, 수산물가공업 등 해양수산 전반에 걸쳐 고소득 종패살포 등 28개 사업, 총 26억원 규모이며 신청기한은 오는 31일까지다.

2026년 사업은 2025년 해양수산부 국고보조사업 시행지침서를 준용해 신청하면 되고 기한은 2월14일까지다.

지원 대상은 함평군에 주소를 두고 어업경영체로 등록한 어업인, 어업법인, 어업인단체다. 단 사업별로 정해진 신청 자격과 필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원 대상자는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뒤 타당성 검토와 평가표에 따른 우선순위 결정, 현장 확인, 심의위원회를 거쳐 선정한다. 최종 확정은 3월 중 이뤄질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함평군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함평=한수영 기자 hsy@kwangju.co.kr